

## **Session 2 The Power of Sorrow: Unto Spiritual Maturity or Spiritual Crisis?**

세션 2 슬픔의 힘: 영적 성숙에 이르기까지, 혹은 영적 위기에 이르기까지?

*“Let me drink from the river of Your pleasures as I delight in Your beauty” (Ps. 36:8; 37:4)*

“주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며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소서(시 36:8; 37:4)”

### **I. HOW WE RESPOND TO SORROW DETERMINES OUR SPIRITUAL DESTINY**

슬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 부르심이 결정된다

A. How we respond to Jesus when sorrow engulfs our heart determines our spiritual destiny.

슬픔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영적 부르심을 결정한다.

***“But these things I have told you, that when the time comes, you may remember that I told you of them...<sup>4</sup>But because I have said these things to you, sorrow has filled your heart. (Jn. 16:4-6)***

<sup>4</sup>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 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KJV 한글, 슬픔) 가득하였도다 (요 16:4-6)

B. We can respond to sorrow in two different ways. Sorrow can lead us to a desperate hunger to connect with Jesus in deep way to seek answers and to receive supernatural joy, peace and confidence. However, when many believers experience sorrow, it results in them being overcome with fear, shame, and the despair related to regret in their life. Thus, sorrow can give us a new urgency to go deep in God or it can result in us quitting and being overcome with dark emotions.

우리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슬픔에 반응할 수 있다. 슬픔은 답을 구하고 초자연적인 기쁨, 평화, 확신을 얻기 위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필사적인 갈망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슬픔을 겪게 되면 삶의 후회와 관련된 두려움, 수치심, 절망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므로 슬픔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새로운 위기의식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히게 할 수도 있다.

C. If we respond to the Lord rightly, we can avoid a great spiritual crisis in our life. Many Christians have been overcome with sorrow related to unfulfilled expectations, fears of coming trouble, the pain of betrayal, the shame of their personal failure, confusion about the direction for their life, etc.

우리가 주님께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우리 삶의 큰 영적 위기를 피할 수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와 다가오는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배신의 억울함, 실패의 수치, 삶의 방향에 대한 혼란 등과 관련된 슬픔에 압도되어 왔다.

## II. REVIEW: THE END-TIME CHURCH IS TRANSFORMED IN CONTEXT TO BETRAYAL

### 복습: 배신의 상황에서 변화되는 마지막 때 교회

- A. The combination of an unprecedented outpouring of the Spirit with betrayal is part of the optimum environment for the Church to be transformed in order to relate as an unified international family of affection (Jn. 17:22-23). Multitudes in the end-time Church will be progressing toward mature love, while others will be overcome with offense that will lead them to betray other believers (Mt. 24:10). Betrayal is an **“accelerant”** that leads to faster growth in humble love *or* in bitterness and offense. 전례 없는 성령의 부어짐과 배신의 조합은 교회가 하나된 국제적인 애정의 가족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 변화 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요 17:22-23). 마지막 때의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성숙한 사랑을 향해 나아갈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신자들을 배신하는 공격에 압도될 것이다 (마 24:10). 배신은 겸손한 사랑이나 비통함과 공격 속에서 더 빠른 성장을 가져오는 “촉진제”다.

<sup>10</sup>“And then many will be offended, will betray one another...” (Mt. 24:10)

<sup>10</sup>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KJV 한글,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 24:10)

<sup>16</sup>“You will be betrayed even by parents and brothers, relatives and friends...” (Lk. 21:16)

<sup>16</sup>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KJV 한글, 친구들에 의하여 배반당하게 허락하겠고)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눅 21:16)

- B. Betrayal is both a demonic attack to hinder our spiritual growth and a divine gift to enhance it. God granted and appointed that His people endure being persecuted and betrayed (Phil. 1:29; 1 Thes. 3:3) that they may be transformed by it—leading to great benefit to them in this age and the age to come. 배신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악마의 공격이자 영적 성장을 향상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 서는 그분의 백성이 박해와 배반을 견디고 (빌 1:29; 살전 3:3) 이로 인해 변화되어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에 그들에게 큰 유익을 주도록 허락하시고 정하셨다.
- C. Jesus’ reason for emphasizing persecution and betrayal (Mt. 24; Jn. 13-17) was so that they would not stumble (16:1). Our greatest danger is not in being betrayed but in responding to it wrongly, leading to our spiritual failure and falling short of the grace of God (Heb. 12:14-15). 예수님께서서 핍박과 배반을 강조하신 이유 (마 24 장, 요 13-17 장)는 그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었다 (16:1).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배반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잘못 반응하여 우리의 영적 실패를 초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히 12:14-15).

<sup>1</sup>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you should not be made to stumble [be overcome by offense]. <sup>2</sup>They will put you out of the synagogues...[and] kill you...” (Jn. 16:1-2)

<sup>1</sup>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공격에 넘어짐]

<sup>2</sup>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 (요 16:1-2)

- D. The Lord is leading His people to be transformed by embracing and imparting Matthew 5:44—*to be like our Father* (5:45). That is, to be a living portrait of what the Father is like (5:45). Embracing this ushers us into a supernatural lifestyle as we love those who betray us. 주님은 마태복음 5 장 44 절을 받아들이고 전함으로 그분의 백성이 변화되도록 이끄신다.

우리 아버지와 같이 되려 하심이라(5:45) 즉,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살아있는 초상화가 되는 것이다(5:45).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초자연적인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

<sup>44</sup>*I say to you, love your enemies, bless those who curse you,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sup>45</sup>*that you may be sons of your Father...for He makes His sun rise on the evil... (Mt. 5:44-45)*

<sup>44</sup>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 <sup>45</sup> 이것은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 (KJV 한글, 마 5:44-45)

### III. THE IMPORTANCE OF ENGAGING WITH JESUS IN TIMES OF SORROW

슬플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

- A. Jesus repeated *these things* 7 times in John 13-17 (13:19; 14:29; 15:11; 16:33; 17:13). Here *these things* refers specifically to John 15:18-16:4—being persecuted and how the Spirit would witness about Him to them and through them (15:26-27). He sought to strengthen them by forewarning them so when persecution came they would remember His kingdom truths and promises.

예수님은 요한복음 13-17 장에서 이 내용을 7 번 반복하셨다 (13:19; 14:29; 15:11; 16:33; 17:13). 여기서 이러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5 장 18 절-16 장 4 절, 즉 박해를 받는 것과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분께 관해 어떻게 증거하실 것인지를 언급된다(15:26-27). 그분은 박해가 닥쳐올 때 그들이 그분의 나라의 진리와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함으로써 그들을 강하게 하려고 하셨다.

<sup>4</sup>*“But these things I have told you, that when the time comes, you may remember that I told you of them. And these things I did not say to you at the beginning, because I was with you.” (Jn. 16:4)*

<sup>4</sup>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 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요 16:4)

- B. Jesus called believers in Sardis to “remember” as one essential ways to overcome spiritual dullness. They were to recall *how* and *why* God called them to be wholehearted and *what* He promised to do and to remember *how* they once responded in tender love with dedication (Acts 19). Our tendency is to forget, so we must be intentional about remembering the divine storyline. The enemy doesn’t want us to remember God’s truths and promises and His narrative of our life and ministry.

예수님은 사데 교회의 신자들에게 영적 둔함을 극복하는 한 가지 필수적인 방법으로 “기억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전심으로 부르셨는지,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기억하고, 그들이 한 때 온유한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반응했던 것을 기억해야 했다(행 19 장). 우리의 성향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약속,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사역에 대한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sup>1</sup>...“you have a name that you are alive, but you are dead. <sup>2</sup>Be watchful, and strengthen the things which remain... <sup>3</sup>Remember how you have received and heard...” (Rev. 3:1-3)

<sup>1</sup> ...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sup>2</sup>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sup>3</sup>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KJV 한글, 기억하며)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 3:1-3)

1. The call to “remember” is one of the most emphasized exhortations in the Scripture with over 80 references—over 60 in the Old Testament and over 20 in the New Testament. “기억하라”는 명령은 구약에서 60 회 이상, 신약에서 20 회 이상 등 80 회 이상으로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권면 중 하나이다.
  2. When we “remember,” then it makes sense to walk out our kingdom commitments. When we “forget,” then we lose sight of many things, become discouraged, and lose motivation. 우리가 “기억”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가 “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며, 의욕을 잃게 된다.
- C. I remember my journey in being trained by God related to betrayal began in my first prophetic encounter as a pastor (Dec. 19, 1976), when the Lord told me that in the future I would be opposed by many but my “greatness” would be related to receiving God’s gentleness, ***responding to my adversaries in gentleness***, and growing in the ability to impart this to others (Ps. 18:35; Mt. 5:44). 배반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훈련 받는 나의 여정은 목회자로서 나의 첫 번째 예언적 만남(1976년 12월 19일)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주님은 나에게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 것이지만 나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온유함을 받는 것과, 나의 대적에게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것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능력이 자라는 것과 관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시 18:1) 35; 마 5:44).
- <sup>35</sup>...***Your right hand has held me up. Your gentleness has made me great. (Ps. 18:35)***  
<sup>35</sup>...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 18:35)
- D. The multifaceted message that Jesus taught in John 13-17 equipped His disciples to walk in mature joy (15:11), and peace (16:33), and not stumble or fall away (16:1) even in times of great troubles. 예수님이 요한복음 13-17장에서 가르친 다면적인 메시지는 제자들이 성숙한 기쁨(15:11)과 평화(16:33) 속에서 살아가며, 큰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16:1) 준비시켰다.
- <sup>11</sup>***“These things I have spoken...that My joy may remain in you...” (Jn. 15:11)***  
<sup>11</sup>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 15:11)
- <sup>33</sup>***“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Jn. 16:33)***  
<sup>33</sup>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 (요 16:33)

- E. The overarching theme of John 13-17 is found in John 14:1 where Jesus commanded the disciples *not to allow trouble to dominate their heart*. There are human dynamics involved as indicated by His command to “let not...” Jesus promised to release His peace (14:27) and joy (15:11) into the hearts of those who continue *not to allow trouble to dominate their heart*.

요한복음 13-17 장의 전체 주제는 요한복음 14 장 1 절에서 발견된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하지 말라”는 그분의 명령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역동성과 관련 있다. 예수님은 문제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계속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분의 평안(14:27)과 기쁨(15:11)을 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sup>1</sup>***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believe also in Me...***<sup>27</sup>***Peace I leave with you...*** (Jn. 14:1, 27)

<sup>1</sup>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sup>27</sup>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1, 27)

See my message and handout on this theme: [https://mikebickle.org/resource/01-overcoming-anxiety-fear-shame-and-betrayal-jn-141-m-bickle/?ett\\_series\\_id=11751](https://mikebickle.org/resource/01-overcoming-anxiety-fear-shame-and-betrayal-jn-141-m-bickle/?ett_series_id=11751)

이 주제와 관련된 마이크 비클의 메시지를 보기 원하시면 위의 링크를 참조하라.

- F. If we do our part in replacing the thoughts that trouble our heart with His truths and promises, then Jesus will do His part in imparting His joy and peace that is stronger than our troubled emotions.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을 그분의 진리와 약속으로 바꾸는 일에 우리의 역할을 다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괴로운 감정보다 더 강한 기쁨과 평안을 부어 주시는 일에 그분의 역할을 다하실 것이다.

- G. In John 13-17, Jesus gives us line-upon-line insight into God’s heart (about 25 truths and promises) that equips us to overcome painful and dangerous emotions that entrap many believers. 요한복음 13-17 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신자들을 사로잡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마음 (대략 25 개의 진리와 약속)에 대해 한 줄 한 줄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 H. As we obey John 14:1, His peace guards our heart (Phil. 4:7). Abiding in Him (talking to God, etc.) includes saying, “*Thank You. Show me more*”—related to each truth and promise in John 13-17. 우리가 요한복음 14 장 1 절에 순종할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 (빌 4:7). 그분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등)에는 “감사합니다. 더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 요한복음 13-17 장의 각 진리와 약속 과 관련이 있다.

<sup>6</sup>***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sup>7</sup>***and the peace of God...will guard your hearts and minds...*** (Phil. 4:6-7)

<sup>6</sup>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sup>7</sup>그 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 I. To better understand what Jesus spoke on Thursday night (Jn. 13-17), we go back to what He said on Tuesday (Mt. 24-25)—two days before the Last Supper (Jn. 13). He prophesied racial conflicts, pestilences, betrayals, martyrdom, the siege of Jerusalem (Zech. 14:2), and more in Matthew 24. Notice that Jesus called them “to be not troubled” (Mt. 24:6) and then repeated it in John 14:1. Jesus continued in the same conversation in His last two messages—in Matthew 24 and John 13-17.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 (요 13-17 장)에 말씀하신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최후의 만찬 (요 13 장) 이틀 전인 화요일(마 24-25 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다. 주님은 마태복음 24 장에서 인종 갈등, 역병, 배 반, 순교, 예루살렘 포위(슌 14:2) 등을 예언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마 24:6)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라. 요한복음 14 장 1 절에 나와 있다. 예수님은 마지막 두 메시지인 마태복음 24 장과 요한복음 13-17 장에서도 같은 대화를 계속하셨다.

***<sup>6</sup>You will hear of wars and rumors of war. See that you are not troubled...<sup>7</sup>For nation [ethnos] will rise against nation...there will be famines, pestilences, and earthquakes... (Mt. 24:6-7)***

***<sup>6</sup>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KJV 한글, 근심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sup>7</sup>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 24:6-7)***

- J. In John 13 and Matthew 24, Jesus specifically highlighted the increase of *fear* with despair from societal crisis and persecution, *grief* from the death of loved ones, *shame* from personal failure, and *bitterness* from betrayal—as troubles the early apostles and the end-time Church would face. 요한복음 13 장과 마태복음 24 장에서 예수는 초기 사도들과 마지막 때 교회가 직면할 문제로 사회적 위기와 박해로 인한 절망,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개인적 실패로 인한 수치심, 배신으로 인한 억울 함으로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강조하셨다.

#### IV. REASONS WHY THE APOSTLES WERE TROUBLED

사도들이 근심하게 되는 이유

- A. *Trouble #1—grief over the death of Jesus*: Jesus reminded them that He was going to be taken from them in death (13:36). Jesus told them on Tuesday that some of them would be killed (Mt. 24:9). 문제 #1 -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들을 떠나게 될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셨다(13:36). 예수님은 화요일에 그들 중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4:9).

***<sup>9</sup>“Then they will deliver you up to tribulation and kill you, and you will be hated...” (Mt. 24:9)***

***<sup>9</sup>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 24:9)***

- B. *Trouble #2—shame over personal failure*: Jesus prophesied that Peter would deny Him (13:38). He said that “all” would stumble that night (Mt. 26:31). They all felt the crisis of shame that night. 문제 #2 - 개인적인 실패에 대한 수치심: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13:38). 그분은 그 밤에 “모든 사람”이 실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6:31). 그날 밤 그들은 모두 수치심의 위기를 느꼈다.

- C. *Trouble #3—bitterness of betrayal*: They would be betrayed by loved ones (Mt. 24:10; Lk. 21:16).  
문제 #3 - 배신의 괴로움: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마 24:10; 눅 21:16).
- D. *Trouble #4—societal crisis*: This includes ethnic conflict, lawlessness, deception, etc. (Mt. 24:7-12).  
문제 #4 - 사회적 위기: 이것은 민족 간의 갈등, 불법, 속임수 등을 포함한다 (마 24:7-12).
- E. *Trouble #5—persecution*: The early church experienced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persecution. Some were killed, beaten, or imprisoned (Jn. 15:19-20; cf. Mt. 24:9; Lk. 21:12; Jn. 16:2).  
문제 #5 - 박해: 초대 교회는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박해를 경험했다. 일부는 살해당하고, 구타당하고, 투옥 되었다 (요 15:19-20; 참조 마 24:9; 눅 21:12; 요 16:2).

<sup>19</sup>“... the world hates you...<sup>20</sup>If they persecuted Me, they will also persecute you.” (Jn. 15:19-20)

<sup>19</sup>...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sup>20</sup>...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요 15:19-20)

- F. *Trouble #6—natural disasters*: pestilence, earthquakes, famines, droughts, hurricanes, tsunamis, forest fires, volcanos, floods, etc. (Mt. 24:7; Lk. 21:11, 25).  
문제 #6 - 자연 재해: 역병, 지진, 기근, 가뭄, 허리케인, 쓰나미, 산불, 화산, 홍수 등 (마 24:7; 눅 21:11, 25).

<sup>7</sup>“And there will be famines, pestilences, and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Mt. 24:7)

<sup>7</sup> 왜냐하면 내가 민족으로 하여금 민족을, 왕국으로 하여금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겠고, 곳곳에 기근들과, 역병들과, 지진들을 일어나게 하겠기 때문이다  
(KJV 한글, 마 24:7)

- G. *Trouble #7—fearful cosmic sights*: There will be signs in the heavens, etc.  
문제 #7 - 두려운 우주 광경: 하늘 등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sup>11</sup>“...there will be fearful sights and great signs from heaven...<sup>25</sup>There will be signs in the sun, in the moon, and in the stars...with perplexity, the sea and the waves roaring...” (Lk. 21:11, 25)

<sup>11</sup>...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sup>25</sup>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눅 21:11, 25)

## V. RECEIVING GOD’S JOY & PEACE—7 TRUTHS THAT JESUS EMPHASIZED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얻음—예수님이 강조하신 7가지 진리

- A. We can cultivate a vibrant heart filled with God’s peace even in times of great trouble. We obey the command “to not allow trouble to dominate our heart” by engaging in conversation with Jesus saying, “Thank You, show me more!” specifically related to each promise and truth in John 13-17. 우리는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찬 생동력 있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요한복음 13-17 장의 약속과 진리와 관련하여 “감사합니다. 더 보여 주세요!”라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에 근심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한다.

<sup>1</sup>“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God [a fact], believe also in Me [a command].” (Jn. 14:1)

<sup>1</sup>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사실] 또 나를 믿으라 [명령] (요 14:1)

- B. *Truth #1—Jesus will return to be with us in the Father’s house forever (14:2-3).*  
 진리 #1 -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14:2-3).  
<sup>2</sup>*“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sup>3</sup>I will come again...” (Jn. 14:2-3)*  
<sup>2</sup>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sup>3</sup>... 내가 다시 와서 ... (요 14:2-3)
- C. *Truth #2—God’s love for us—we can engage in a deep relationship with God (14:23; 15:5, 9).*  
 진리 #2 -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14:23; 15:5, 9).  
<sup>9</sup>*“As the Father loved Me, I have loved you; abide in [live in and focus on] My love.” (Jn. 15:9)*  
<sup>9</sup>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살아가고 집중함] (요 15:9)
- D. *Truth #3—Access to supernatural resources through Spirit-led prayer as God supplies our needs. We are urged to ask God for provision, to change our circumstances, to open doors of blessing, etc.*  
 진리 #3 -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기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통해 초자연적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을 구하고, 상황을 바꾸고,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간구한다.  
<sup>13</sup>*“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at I will d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Jn. 14:13)*  
<sup>13</sup>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 14:13)
- E. *Truth #4—How Jesus responded to the apostles when they stumbled. On the night the apostles all stumbled (Mt. 26:31), He assured Peter that he would recover and be used by God (Lk. 22:31-32); He affirmed His love (15:9), encouraged them (15:8), and called them His friends (15:15).*  
 진리 #4 -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걸려 넘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사도들이 모두 넘어지던 날 밤 (마 26:31),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눅 22:31-32). 그분은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시고(15:9), 그들을 격려하시고(15:8), 그들을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셨다.
- F. *Truth #5—The joy of eternal rewards for being faithful to Jesus and enduring persecution. It is glorious that weak human beings—by grace—can bear fruit that remains forever (15:16).*  
 진리 #5 - 예수님께 신실하고 박해를 견디는 데 대한 영원한 보상의 기쁨이다. 연약한 인간이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남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15:16).



## VI. NONE OF YOU ASKS ME (16:5)

너희 중에서 나더러 묻는 자가 없고 (16:5)

- A. *None of you asks Me* (16:5): Peter had asked Him this question (Jn. 13:36), and Thomas implied it (Jn. 14:5). They were both concerned to know what location in Israel that Jesus might temporarily go to instead of wanting to understand His destiny with the Father out of love for Him (14:28).

너희 중에서 나더러 묻는 자가 없고 (16:5):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었고 (요 13:36) 도마는 질문을 암시하는 말을 했었다 (요 14:5). 그 둘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분의 운명을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느 곳으로 가실지 알고 싶어했다(14:28).

<sup>5</sup>*“But now I go away to Him who sent Me, and none of you asks Me, ‘Where are You going?’*

<sup>6</sup>*But because I have said these things to you, sorrow has filled your heart. (Jn. 16:5-6)*

<sup>5</sup>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sup>6</sup>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KJV 한글, 슬픔이) 가득하였도다 (요 16:5-6)

<sup>28</sup>*“If you loved Me, you would rejoice because I said, ‘I am going to the Father,’... (Jn. 14:28)*

<sup>28</sup> ...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 (요 14:28)

We overcome sorrow by engaging in the big-picture narrative of who Jesus is as a man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Jesus was fully aware of the glorious events related to going to the Father as Paul highlighted (Eph. 1:20-23). The Father seated Jesus in the highest governmental position in creation—far above all angels and demons. He put all things under Jesus’ feet. He transferred the “ownership” of all things to Jesus by divine decree. He gave Jesus to the Church as head so the body of Christ is the vehicle through which He expresses the fullness of God’s glory on earth. 우리는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큰 그림에 참여함으로써 슬픔을 극복한다. 예수님은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관련된 영광스러운 사건들을 충분히 알고 계셨다 (엡 1:20-23).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창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통치의 자리, 즉 모든 천사와 악마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분은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 그분은 거룩한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기셨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수단이다.

<sup>20</sup>...when He [the Father] raised Him...and seated Him at His right hand in the heavenly places,

<sup>21</sup>far above all principality and power and might...<sup>22</sup>He put all things under His [Jesus’] feet... and gave Him to be head...to the church, <sup>23</sup>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all. (Eph. 1:20-23)

<sup>20</sup> 그의 [성부의] 능력이 ...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sup>21</sup>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sup>22</sup> 또 만물을 그의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sup>23</sup>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 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엡 1:20-23)

## VII. JESUS GIVES TRUTH TO HIS PEOPLE IN A PROGRESSIVE WAY (JN. 16:4, 12)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점진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전하신다 (요 16:4, 12)

- A. Jesus gives truth in a progressive way according to the capacity of those to whom He is speaking.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점진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전하신다.

<sup>4</sup>“...*These things I did not say to you at the beginning, because I was with you. <sup>5</sup>But now I go away to Him who sent Me...<sup>6</sup>Because I have said these things...sorrow has filled your heart...<sup>7</sup>It is to your advantage that I go away; for if I do not go away, the Helper will not come to you...<sup>12</sup>I still have many things to say to you, but you cannot bear them now.*” (Jn. 16:4-12)

<sup>4</sup>...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sup>5</sup>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 데... <sup>6</sup>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sup>7</sup>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sup>12</sup>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 16:4-12)

- B. *I did not say to you at the beginning* (16:4): Because Jesus was with them at the beginning, He did not describe the hostility in the same detail as He did in 15:18-16:4 where He explained why the world hates them and how the Spirit would witness of Jesus to them and through them (15:26-27). In other words, “these things” in 16:4 refers specifically to 15:18-16:4.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16:4): 예수님은 처음에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15 장 18 절-16 장 4 절에서 세상이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그들에게 또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것인지를 설명하신 것처럼(15:26-27) 적개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다. 즉, 16 장 4 절의 “이런 일들”은 구체적으로 15 장 18 절부터 16 장 4 절까지를 가리킨다.

1. At the beginning, all the persecution and hatred was focused on Jesus. But now that He was leaving them as His representatives, they would begin to face the hostility aimed at Him. 처음에는 모든 박해와 미움이 예수님께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그들을 그분의 대표자로 남겨 두셨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겨냥한 적개심에 직면하기 시작할 것이다.
2. These words in 16:4 seem to contradict times in the past where He spoke of their future persecutions (Mt. 5:10-12; 10:16-23; 24:9; Lk. 6:22-23; 12:4; 21:16). 요한복음 16 장 4 절의 이 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미래에 겪게 될 박해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는 것 같아 보인다(마 5:10-12; 10:16-23; 24:9; 눅 6:22-23; 12:4; 21:16).

- C. **These things:** The expression, *these things*, includes things that He had just spoke with new details—such as the future troubles they would face that He prophesied on Tuesday (Mt. 24), and details such as being betrayed by leaders in their synagogues, thus by leaders who assumed they were serving God by putting the apostles out (16:2). He shared one reason for His death and ascension was to that He might send the Spirit to teach, empower, and guide them (15:26-27; 16:7).  
**이 말을:** 이 표현은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세부사항들이 포함된다. 이 세부사항은 화요일에 예언한 것과 같이 미래에 마주칠 어려움들(마 24 장)과 그들의 회당에서 지도자들에 의해 배반당하게 되는 것 등을 말한다. 이는 사도들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한 지도자들에 의해 배반당할 것임을 의미한다(16:2). 또한, 그는 자신의 죽음과 승천의 하나 이유로 성령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치고 능력을 주며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 (15:26-27; 16:7).
- D. **It is to your advantage** (16:7): I tell you the truth. It is to your advantage that I go away.  
 너희에게 유익이라 (16:7):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 E. **I have many things to say:** At the beginning, these “many things” were not needed at that time.  
 이를 것이 많으나: 처음에는 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sup>12</sup>“***I still have many things to say to you, but you cannot bear them now.***” (Jn. 16:12)

<sup>12</sup>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 16:12)

- The apostles struggled to receive the things that He was emphasizing during the 3½ years of ministry—some things were too much for them to bear (16:12), and fallen humans are slow of heart to understand (Mt. 16:21-23; Lk 24:25).  
 사도들은 3년 반의 사역 동안 그분이 강조하신 것들을 받기 위해 분투했다. 어떤 것들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고(16:12), 타락한 인간은 마음이 더디었다 (마 16:21-23; 눅 24:25).

<sup>21</sup>***From that time Jesus began to show to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be killed, and be raised the third day.*** <sup>22</sup>***Then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saying, “Far be it from You, Lord; this shall not happen to You!”*** <sup>23</sup>***But He turned and said to Peter, “Get behind Me, Satan! You are an offense to Me, for you are not mindful of the things of God.”*** (Mt. 16:21-23)

<sup>21</sup>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sup>22</sup>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sup>23</sup>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 16:21-23)

<sup>25</sup>...“***O foolish ones, and slow of heart to believe in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Lk. 24:25)

<sup>25</sup>...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눅 24:25)

2. The “many things” would require the Spirit of Truth as their teacher to reveal many truths such as those set forth in the books of Revelation, Romans, Ephesians, 1 & 2 Corinthians, etc. t forth in the books of Revelation, Romans, Ephesians, 1 & 2 Corinthians, etc.  
“많은 것”은 요한계시록,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및 후서 등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많은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 진리의 영이 그들의 선생님이 되어야함을 말한다
- F. Jesus’ model of teaching about trouble was to give the information progressively according to what people could understand and bear. This will vary greatly according to the measure of understanding and spiritual maturity of each community of believers.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델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각 신자 공동체의 이해와 영적 성숙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 G. What Jesus told them earlier in 15:15 is not a contradiction to what Jesus said here in 16:4.  
예수님이 앞서 15 장 15 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여기 16 장 4 절에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15“No longer do I call you servants, for a servant does not know what his master is doing; but I have called you friends, for all things that I heard from My Father I have made known to you.” (Jn. 15:15)***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 15:15)***
- H. Paul embraced the principle of teaching to meet the need of those he ministered to. He fed some believers with the milk of the Word because they could not bear the solid food (meat, 1 Cor. 3:1-2).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르치는 원리를 받아들였다. 그는 단단한 음식(고기, 고전 3:1-2)을 견딜 수 없는 몇몇 신자들에게 말씀의 젖을 먹였다.  
***1And I, brethren, could not speak to you as to spiritual people but...as to babes in Christ.***  
***2I fed you with milk and not with solid food; for until now you were not able to receive it... (1 Cor. 3:1-2)***  
***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전 3:1-2)***  
***2as newborn babes, desire the pure milk of the word, that you may grow thereby. (1 Pet. 2:2)***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벧전 2:2)***
- I. There are many levels of understanding in the multitudes in the body of Christ today.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군중들은 다양한 수준의 이해의 정도를 가진다.  
***12By this time you ought to be teachers, you need someone to teach you again the first principles of the oracles of God; and you have come to need milk and not solid food. 13For everyone who partakes only of milk is unskilled in the word of righteousness, for he is a babe. (Heb. 5:12-13)***  
***12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sup>13</sup>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 5:12-13)

- J. In John 15:15, Jesus said He gave the germ of truths for 3½ years and then more in John 13-17 but much more after the resurrection (Acts 1:3 and to the apostle) as unfolding of the flower of truth. 요한복음 15 장 15 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싹을 3 년 반 동안 주셨고 요한복음 13-17 장에서는 더 많은 진리의 싹을 주셨고 부활 후에(행 1:3 과 사도에게) 진리의 꽃이 피어나도록 더 많이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sup>3</sup>*to whom He also presented Himself alive...being seen by them [the apostles] during forty days and speaking of the things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God. (Acts 1:3)*

<sup>3</sup>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사도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행 1:3)

- K. In the generation the Lord returns, the Lord promised to raise up “people of understanding” who will help others understand the biblical narrative related to the end times (Dan. 11:33). This promise is available to all believers. “Many” will be hungry for answers from God’s Word.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대에 주님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충명한 사람들”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단 11:33).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갈망할 것이다.

<sup>33</sup>*And those of the people who understand shall instruct many. (Dan. 11:33)*

<sup>33</sup>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 (단 11:33)

<sup>20</sup>*The anger of the LORD will not turn back until He has executed and performed the thoughts of His heart. In the latter days you will understand it perfectly. (Jer. 23:20)*

<sup>20</sup> 여호와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 전히 깨달으리라 (렘 23:20)

- L. As shepherd we speak truths to help people grow spiritually, not to reveal how much we know. 우리는 목자로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sup>15</sup>*I will give you shepherds according to My heart, who will feed you wit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Jer. 3:15)*

<sup>15</sup>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렘 3:15)

- M. We are speak the truth in love to edify the younger believers that we minister to (Eph. 4:14-15).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젊은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엡 4:14-15).

<sup>14</sup>*that we should no longer be children, tossed to and fro and carried about with every wind of doctrine... <sup>15</sup>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may grow up in all things into Him who is the head. (Eph. 4:14-15)*

<sup>14</sup>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sup>15</sup>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 4:14-15)